

지역 매 아 리

한우협회 김제시지부

지역아동센터에 한우 133kg 기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한우협회 김제시지부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아동들을 위해 한우 133kg을 기탁하고 열매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김제시지부는 한우자조금 협회에 가입한 한우농가와 함께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신선한 한우를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고 사회공헌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한우는 한우불고기 1등급 이상 133kg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1곳에 전해져 아동들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섭 한우협회 김제시지부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난 신선한 한우를 먹고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우리 지역을 빛내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주현 김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주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요촌동, 3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전수조사 실시

김제시 요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요촌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세대를 복지통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담당자가 공동방문팀을 구성하여 가가호호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되는 전수조사는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및 장기입원, 주거실태 파악 등 복지욕구와 생활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생계비등의 정부 지원금 적정사용 및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실제 수급여부와 통장의 본인관리 및 적정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수급 적발 시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 기회를 통해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방안에 대한 주민홍보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재정 인센티브 13억원 확보

완주군,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서 53차례 수상 시상금 내년 현안사업에 투입, 군민 편의 증진키로

완주군이 지난해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50여 차례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1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를 향한 성장기들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총력전을 기울인 결과 주요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53차례나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13억8800만원을 받았다.

군은 수상에 따른 시상금 등을 내년 현안사업에 투입해 군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수상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완주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2년 연속 1위(인센티브 1억원)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군은 행안부가 평가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단체 선정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받아 도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행안부가 주관한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전북 1위를 차지해 ' 으뜸 안전도시'로서의 도약을 알렸다.

세계에서는 완주군의 먹거리정책을 주목했다. 아시아 최초로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특별상을 거머쥐며 완주군의 먹거리정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18 지방자치 박람회에서는 5개 전 분야를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공약이행 분야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완주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으며, 법률소비자연맹의 같은 평가에서 군 단위 중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줄줄이 상위를 석권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추진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평가'에서 완주군은 종합경쟁력 전국 4위를 달성했으며, 경영활동 부문에서는 전국 2위에 랭크됐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돼 지방자치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고와 공이다"며 "올해도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 하늘의 까마귀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김제시 성덕면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까마귀떼가 하늘을 가득 메운채 날고 있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 등 나눔 이어져

김제시 금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돕기 후원금 모금 행사

김제시 금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용석)에서는 최근 협의체 위원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대 판매 행사를 금구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가졌다.

금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용석 민간위원장 및 지역주민인 박진인(선락), 김영신(정농), 윤형진(송원)씨가 기부한 백미 20kg 20포대로 만든 떡국 및 떡국을 떡대를 판매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금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중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조직으로써 그동안 생일을 맞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초청

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비누,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심비보 행기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송용석 민간위원장은 "이날 떡국·떡대 판매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홍보효과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자원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는 등 점차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구면에 소재한 (주)신흥콘크리트(대표 이교성씨)는 매년 민족 명절인 설과 추수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업인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명절에도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40포를 기탁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선정

사업비 125억원 투입 계획...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탄력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하는 사업 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모아 신청하면, 이행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단위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가운데 완주군은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직매장 교육홍보 지원사업 ▲농산물종합 가공기술지원사업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발작물 공공경영체 육성지

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청했다.

2023년까지 총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효문화 실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간담회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효문화 실천을 위해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소외노인 보호 및 연계서비스 강화 등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임원 및 주민복지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선 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드리고, 노인들은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존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활기찬 매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노인일자리가 민선7기의 경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 전체 시민의 25%에 달하는 노인세대에게 마을환경지킴이 75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46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공동작업 활동, 노인협동조합 같은 생산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일을 통하여 보람과 즐거움도 느끼면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유)한스, 백산면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포 기탁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소재 (유)한스(대표 이근호)는 최근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 10kg 백미 20포를 기탁했다.

(유)한스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토목 및 건축자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모범적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석과 설 명절마다 쌀과 생필품을 기부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나눔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이근호 대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소외되고 배고픈 이웃 없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누고 베푸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백미를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후, 관내의 저소득 및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